

김주일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 다
투는 것은 마치 재물 잃
음을 가리는 것과 같나니, 그 다음으로 인
하여 그 뜻을 악으로 향하게 한다.
(법구경·연어품 144절)

東大新聞

편집장: 김주일이
주간: 김주일이
주요: 김주일이
편집: 김주일이
발행: 김주일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동국대학교
전화: 260-3491~2 FAX: (02)279-1270
780-714 경복궁 경주시 석장동 707 (☎ 770-2057)

제 1202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5월 20일 (월요일) 1

제34회 동대백일장 개최 뜻뜻한 예비문인들의 잔치

본사 주최 제34회 전국 고등학생 대상 '동대 백일장'이 지난 18일 학술문화관 세미나(2실)실에서 열렸다. 백일장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치렀던 예선에서 입선한 고교생 1백44명이 시, 소설, 수필 부문에서 저마다의 장작솜씨를 뽐냈다. 각 부문별 주제는 △시= 하늘, 새 △수필= 눈길, 가장 미웠던 나 △소설= 사진 한장, 병실이었다. 심사결과 시부 남해경(이리 남성 여고3), 수필부 이화진(사산여고2) 양이 장원을 차지한 것으로 발표됐다. 소설부에서는 장원없이 과상화(안양여고3)양이 우수상을 수상했

다. 심사는 △시=김선학(인문대 국문학·평론가), 윤석성(인문대 국문학·시인), 최순열(사범대 국어교육·시인) △수필=이준성(법정대 법학), 고재석(사범대 국어교육·평론가) △소설=홍기삼(문과대 한국어문학부·평론가), 한용환(사범대 국어교육·소설가)교수가 맡았다. 시상식에서 김생빈부총장(공대 목목공학)은 치사를 통해 "각박한 임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도 문학 적 감성과 지질을 키워나가는 일은 청소년의 자기수행에 있어 아름답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당선작품은 본지(1203호)에 게재된다.

세계화 장학연수 희망자 선발

MSU·학점인정혜택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문학)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경보관리학)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외단기연수 기회를 주는 세계화 장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자 50명이 확정된 가운데 자비로 참가할 희망자를 선착순(10명) 선발한다. 연수내용은 △대상대학=미시간 주립대(MSU) △기간=96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2주간)예정 △특전=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 3학점)으로 세계화 장학생과 동일하다.

단, 비자수수비를 제외한 연수경비는 자비 부담이며, 수업료·숙식비 등을 포함해 약 2천5백달러(약 2백만원)이다. 한편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생 선발은 오는 25일까지 추가선발한다. MUS와 메인주립대, 하와이주립대에 한하여 각각 1명, 9명, 8명 선착순 선발하며 연수기간 및 경비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2천3백4명 장학금 혜택

우수 신입생 해외연수 53명

96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결과 교내장학금으로 2천35명이 1억7천6백41만9천5백원을, 교외장학금으로 2백59명이 3천2백62만3천750원을 지급받아 총2천2백94명이 20억9천62만3천2백50원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장학금의 학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1백55명, 1억7천3백4만1천5백원 △2학년=5백89명, 4억6천1백22만원 △3학년=6백62명, 5억5천6백4만7천원 △4학년=6백29명, 5억5천6백1만1천원이 지급됐다. 교외장학금은 38명이 동문화 장학금 3천4백4십만원, 99명이 장학재단으로부터 1억4천4백12만3천원을, 99명이 공공법인에서 9천8백34만6천7백50원을, 13명이 기타 장학금으로 4천9백33만4천원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원용장학(늘어준 자녀대상)이 신설되어 43명에게 4년간 수업료보

액이 지원된다. 또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해 수능 150점 이상자에게 장학금이 아닌 해외연수를 보내는 세계화장학이 실시되어 5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천마기 야구대회 24일 경남대와 1차전 야구부(감독=황동훈)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리는 천마기 전국야구대회에 출전한다. 총 19개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치러지며 본교는 경남대와 오는 24일 1차전을 갖는다. 국가대표 선출된 신경원(체교3)과 박재호(경영4)의 공백을 신진 선수들이 잘 메꾸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표성대(사회과학계열1)와 정원석(체교1)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는 24일 전북대 제4기 한총련 출범식

전대협 이어 10년 맞이

학생운동 진단 및 대토론회 마련

'노수석 권회정, 진철원, 오영권, 황태인. 백만은 이들의 죽음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슬픔을 분노로, 백만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친구사랑의 의리로 학살자와 아합하며 민중학살 자행하는 김영삼을 민중의 바다로 몰아넣자' 제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정=정명기·해양4 전북대학교총학생회장) 출범식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전신 전대협 6기를 포함 1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제4기 한총련은 △한총련의 위상강화 △김정권 타도 △미국의 본질 파헤치는 오일투

쟁 총화 △통일 단결 실현 △4천만 민중의 단합 △전북총련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데 이번 출범식 의의를 두고 있다. 출범식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3일 늦은 3시 전북대에서 집결하여 6시에 시민학생 열리 마당이 열리고, 9시에 전야제가 치러진다. 24일에는 이른 6시30분 기상후 9시 강연행사로 진행되는 열리마당이 전개된다. 이후 현시기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10주년기념 대토론회가 늦은 1시에 열리며 3시에는 청년가요제가, 6시 30분에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

국통일위원회 등 특별기구 출범식이 진행되고 이어 한총련출범식 본대회가 9시30분 성대히 치러진다. 25일에는 이른 9시30분 지역지구별 평가회의가 있고 한총련 결의대회가 11시에 열려 전주시내로 나서는 거리행진으로 이어진다. 이후 늦은 1시 시민·학생 결의대회가 시청 앞에서 치러진 뒤 2시30분 전북대로 돌아와 정리집회를 갖은 뒤 출범식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한편 한총련은 25·26일에 걸쳐 서울에서 실천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97학년도 입시요강 세부내용 결정

대학 재량에 따른 자율적 학생선발

간 일반계열 및 연극 영상학부 이론·연출 선택자에 한해 종전 생활기록부와 종성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 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의

한 관계자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학교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입시과목 선정이나 방법, 성적반영, 비율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수

윤희

불교의 근본교리 가운데 윤회라는 가르침이었다.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나고 죽음을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사실 생명의 신비는 도저히 언설로서 설명될수 없는 것이다. 똑같이 부화한 병아리를 보아도 생각새가 다르다. 똑같은 장미꽃지만 그 붉음의 농도와 질감은 완연히 다르다. 문제는 인간들이 그 현상을 지나쳐 버리지 못하고, 설명하려는데 있다. 윤회는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는 불교적 방법이다. 비가 대지를 적신다. 모인 빗물은 사내가 되고, 또다시 강물로 흘러간다.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며, 그 수증기들이 모여 구름을 이룬다. 이 구름이 다시 대지에 뿌리는 거대한 원형의 순환관계가 된다. 윤회란 이 자연의 질서, 섭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윤회의 비밀을 지나치게 생물학적 전연의 과정으로만 해석하려는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그 상징성에 천착하면서 내상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윤회적 세계관에 서면 우리는 삶을 일회적 무상성(無常性)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는 생사의 윤회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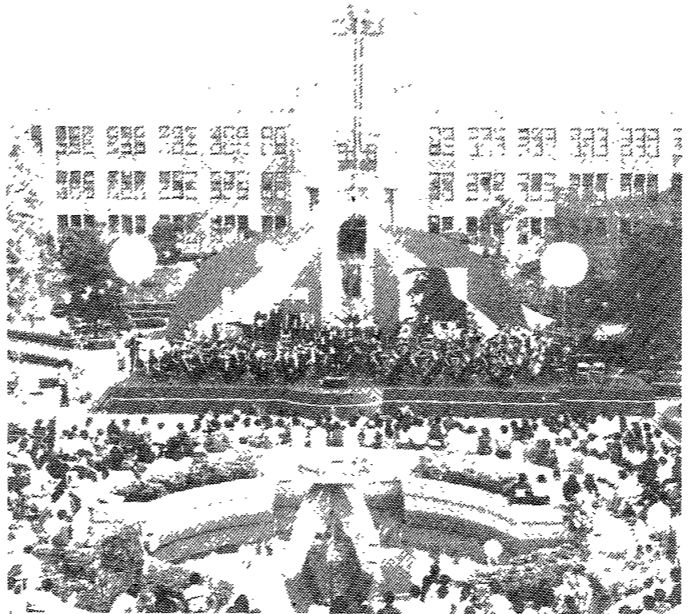
엇보다도 확실한 윤회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자식이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있다. 어렸을때의 내모습, 그 고뇌를 되풀이하고 있기때문이다. 시간의 간격을 뛰어 넘는 끈끈한 업의 이어짐을 느끼게된다. 윤회한다는 생각은 인간을 결속하게 만든다. 또 나 이외의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다만 윤회를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가 누구를 부모로 선택하였는가는 전혀 자의지가 아니고 운명이다. 그러나 동국인이 된 것은 타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이다. 운명에는 이와같이 바꿀수 없는 것과 바꿀수 있는 부분이 혼용되어 있다. 이제 5월이다. 신복의 향연속에서 캠퍼스는 싱싱한 젊음을 뽐내고 있다. 그 젊음의 에너지는 보다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래서 동학의 윤회가 더이상 자조와 실의, 패배감속에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벽간 희망의 미래가 있지 않은가. 정병조 문과대 국민원리학교수

축구부, 대학연맹전 출전 경희대와 2위다툼기대

교수동정

본교 축구부(감독=최종덕)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동대문, 효창구장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준결승 및 결승전에 골든볼을 적용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한국교원, 선문, 경희, 고려대와 함께 2조에 속해 있다. 대학강호인 고려대가 조순위를 맡을게 확정적이며, 본교는 실력이 비슷한 경희대와 2위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이번 대회에서 8강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9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의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동국대-선문대(15일 12시 45분 효창보조구장) △동국대-교원대(17일 14시30분 효창구장) △동국대-경희대(19일 16시15분 옥사운동장) △동국대-고려대(23일 16시30분 옥사운동장)

▲김두희 교수(의과대 의학과)=7차 아시아 농촌 의학회 및 농촌 보건학회의 주제발표자 일본 홋카이도 아시히가와를 5월 22일에서 5월 24일까지 방문한다. ▲김규석(건축공학과)=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술교류 및 기술자료 수집차 캐나다(밴쿠버, 오타와, 토론토)와 미국(덴버, L.A)을 방문한다. ▲전영일(건축공학과)=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NCARB회의에 참가한다. ▲조암(산업공학과)=동경 와세다대학에서 열리는 제37회 일본인 강공학회에 논문 발표차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에 머무른다.



◇비천, 거래의 하늘을 날아... 본단조국의 통일운동으로 일익을 보충하고 있다. 지난 17일 본교 불상양 특별무대에서 열린 음악공연은 그의 음악세계와 조국사랑의 높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취재부)

동대신문사 제38기 수습기자 모집 기원광고

왜 동대신문사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가

- A+를 받는 몰지각한 사내는 일어나지 않는다.
- 눈치만 빠르면 시외전화와 PC통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칼 번스타인이 될 수 있는 제 일 요건을 갖출 수 있다.
- 취재를 빌미로 섹스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
- 토요일 외박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 비만의 경우 체중감량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인터뷰를 위해 흥경인이나 흥진경과 하루종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동대신문사

모집인원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만화·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지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5월 25일(토) 오후 5시까지
- 시험일자: 1차 5월 27일(월) 오후 6시, 2차 5월 28일(화) 오후 5시
- 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시험장소: 학림관 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press@naver.com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00-3491-2 (0561)770-2057

공청회 무산, 무관심이 원인

각주체, 공청회 중요성 인식필요

지난 17일 대동제 행사 중 언론 협의회(이하 연합)주최 '공청회'가 무산됐다. 따라서 연합에서는 자체 평가를 내려 대자보화 했으나 그것이 자보수거일 기간까지 불어있지 못하고 무산이유인지 훼손되어 동대신문 열람클터리는 지면을 통해 '연합 공청회 무산에 대한 자체평가'를 일반학우들에게 밝힌다.

공청회는 단체 및 자치기구장을 대상으로 그간 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연합회 기자들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공통질문과 2-3개의 개별 질문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를 지켜본 학우들이 이들에게 공평했던 사안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따라서 학우들이 이를 지켜본 후, 단체 및 자치기구를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공청회이다.

그러나 이번 무산의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단체 및 자치기구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여러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주최인 우리 연합의 책임이다. 모든 사업에 있어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바로 주최측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그 대상인 총학생회장을 제

외한 단체 및 자치기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청회라는 것이 학우들에게 냉정하게 평가받는 것임을 알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사로운 여견된 것이다. 물론, 대동제기간 바쁘지만 학우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이렇게 평가하고 앞으로 사업방향을 어떻게 하고 싶을지'를 솔직하게 고백할 '시간'은 당연히 남아 있지 않은가.

셋째는 정작 공청회의 주인인 학우들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다. 그 말은 학우들이 직접 뽑아 놓은 학생회장들이 운영하는 학생회가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 혹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정작 학우들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학우들이여, 그것은 곧 '우리들의 학생회를 죽이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연합에서는 '공청회 무산에 대해 자체평가를 내려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철저히 자기비판할 것이며 이를 전회차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와함께 학우들에게 공식사과드리는 바이다.

정현근
(연합회의 부위원장, 인문과학대 국문과)

'후문 앞 일방통행 해야한다'

교통사고 등 우려·지속적 논의속 가능

후문을 통해 학교를 등·하교하기는 무척 고달프다. 총무로 지하철역을 무사히 빠져나와 녹두거리에서 이르게 되면 때때로 채운 차량들 때문에 짜증과 겁이 들끓는다. 제일병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연일 혼잡한 후문 앞 거리는 볼때가 수 백을 훨씬 육박하고도 남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리의 실정을 무엇에 반증할까?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할까" 하면서 교통사고 불감증에 놓여있는 우리들, 얼마전 신문을 통해 보도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초등학생의 사망'과 이를 기습아파한 친구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제28대 총학생회 중심으로 지난 대동제 폐막식에서 주빈·학생이 아니라 녹두거리를 일방통행시키자는 캠페인은 때늦은감 없이 없었지만 대한연맹 만만 것이다. 혼잡한 대동제에서 지쳐 빠져나온 우리에게 닥친 후문 앞 대혼잡,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 발발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무엇인가? 옛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 법하다. 진정 우리가 교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갈 때 비로소 작은 교통문화 정착이 허풍의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후문 앞 일방통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일방통행문제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틀 속에서 활성화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학교 주변거리는 백백한 상가의 밀집과 좁은 도로 사정이 마한

분리수거, 학교·학생 모두의 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불만이 많은 듯하다. 학교 내의 불로, 계단, 잔디밭 심지어 후문 정승이 서 있는 작은 화단까지 발걸이 닿는 곳곳에 많은 담배 공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물론 학교 내에 휴지통이 있긴 하지만 특히 담배 공초를 꼭꼭 썬 버릴 만큼 휴지통이 상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나 역시 항상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을 이야기하려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담배 공초를 아무곳이나 버리는 일은 옳지 못하다. 담배 공초를 버릴 때 있어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보다 깨끗한 학교는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담배 공초는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동국관 3층 분리 쓰레기통의 경우 담배 공초가 들어가지 할 쓰레기통은 없는 듯하

가지이다. 비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이제까지의 '왕좌중'과 '위험요소'는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빈·학생 하나 되어 일방통행 합시다!

조인환
(공과대 산업공학과)

다. 그러나 생각 있는 휴먼가들의 성의를 무색케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동국관 식당의 경우에서도 보여진다. 흔하디 흔한 우유곽은 우유곽대로 모으는 가정에서의 습관으로 식당 앞 분리 쓰레기통의 비합리적인 구분은 우유곽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한다. 또한 동국관 3층은 분리 쓰레기통종 하나(종이류 쓰레기통) 식수대 옆에 떨어져 위치하여 전혀 분리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깨끗한 학교를 이루는 일, 그 과정에서 분리 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물론 한사람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의 그 필요성 인식과 협심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리 수거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승배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한약조제시험 문제있다

정부, 양한방 동등하게 대우해야

나는 본과 2학년이다. 일관한 해인 93년부터 지금까지 두번의 유급을 당하며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해왔다. 왜 한의학도는 그래야 했는가 그것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권력유지를 위하여 이권과 돈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때문이다.

93년 정부는 약사의 이권을 위하여 약사의 한약조제를 가능하게 하여 줬으나 국민의 힘과 한의학도의 가열찬 투쟁으로 결국 약사의 한약조제권 원칙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이 때 합의한 각종의 상항을 무시하고 지금의 무원칙하고 무소신의 보건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의학도의 근본 한약사제도는 원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양의학과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한약사제도 도입은 민족의적인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한약과 양약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양약의 가치 규명하고 양약과 전혀 다른 이론체계를 가진 한약을 배움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한채, 약대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여 약사들도 한약사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공보건 한약사제도의 전면실시와 협약의료 보험 실시도 현재 이권에 휩쓸려

관련법규의 개편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서 그동안 불법으로 한약을 조제한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한약을 조제하고 있었던 2천여명의 약사들에게 한약조제권을 주는 검증차원의 시험이 지금도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한약조제시험은 그때 한약을 조제한 약사들뿐 아니라 아직 개원하지 않은 사람이나 가정주부,교수들까지 응시한 상황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아무런 원칙없이 표가 많은 이권단체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권력유지의 일환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학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어떻더라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이 올바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조제함으로써 미치는 국민에 대한 악영향은 한의학도이든 하나의 학생으로서도저히 간과할 수 없기에 지금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의학을 일찍이 국민보건에 상당부분 이바지하고 있으며 민족의학으로서 국민의 뇌리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송인광
(한의학 본과)

동/문/칼/럼

때가 있다



졸로만 알았고. 교육행정이 늘 그랬듯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보다는 내가 왜 여기 동국대학 밖에 못 왔을까라는 건방진 반항을 하고 있었기에 C.S.C라는 강남공공운명체를 만들어 친구들을 유혹(?)하기도, 즐겁게도 한적도 있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는 자기반성이 아닌 나는 목적이 축제가 나의 놀이였었고, 동대문은 동정은 나의 싸움터였었다. 그런 중에도 내 학생생활의 보람을 찾아 보겠다고 2년정도 야간학교 선생님이 역할도 해보고, 좌우지간 멋대로 생활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

나의 목적이없는 '졸업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당시 한학기 장학선으로 입학했던 나는 졸·정·제라는 행정학 법이 나와는 당연히 무관한 것이

를 하게 되고 이것으로 입사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박탈(기회가 있었어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음) 당한 나는 교수님의 취업추천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적성상 1년후에 다시 지금의 직장으로 옮겼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남보다 많은 시간을 업무와 씨름하며 보냈고 좀더 많은 실력을 거양하기 위하여 동문서주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본적인 지식의 부가적이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내가 간단한 경제논리도 모른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외국어 하나도 못하더라 말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환한가 된다. 외국어 구사 능력부족,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출근시간에 앞서 2년여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때를 놓친 탓에 별로 진척되지 않고 학교에서 배워야 했을 지식을 대리출석

이내 대리시험으로 모두 상실했으니 새로 학습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았다.

지금도 학교때 적절히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던 후회가 막심하다. 하지만 나는 목적인으로서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목표의 후배들이여! 세상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임을 명심하라. 공부할때와 사랑할때, 잠들때와 깨울때 이 모든 것에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목적이 머물때가 바로 철차락의 시기임을 간파하지 말기를 바라며 시드리에 지혜로운 후배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성우
(교려증권 무역센터 지점 차장·경연 88층)

자살

심리는 있다. 단지 그것을 견디어 내는 힘이 다를 뿐이다.

▶자살이란 말을 대상화 시키고 싶지 않다. 다만 자살할때, 그 괴로운 순간에 느낀 것은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공공적인 밝은 면을 보는 것은 자살이다. 시력을 잃은 나는 너의 편, 천사는 왼쪽 날개를, 부러진 날개를 날렸다.

▶힘 혹은 잠의 부족

▶자살을 할 정도의 비장한 결단

▶가장 짧은 순간 가장 넓은 세계로 진입한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쉬운것만 생각하기는 가장 쉬운 것.

▶자살은 자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살고 자살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길, 자살은 죽음을 거부하는 반동 아닐까요? 너무 실존적인 기요.

▶산자의 마지막 희망!

▶가수들의 한치레 자살소동이 끝나니 이전 열사들이 줄을 이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속보!!! 더 이상의 자살 소동, 거부한다.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그날까지 절고 길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때론 힘들고 외로워도 쓰러지지 않을꺼야. 나는 문제없어.

▶인간 누구나에게 자살하고픈

▶가장 짧은 순간 가장 넓은 세계로 진입한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쉬운것만 생각하기는 가장 쉬운 것.

▶자살은 자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살고 자살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길, 자살은 죽음을 거부하는 반동 아닐까요? 너무 실존적인 기요.

▶산자의 마지막 희망!

목errick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대 동연 간부님들도 더 분발하시길... 공간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주점 꼭 함께 합시다.

-동연장

■동그라미 여러분! 축제전 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장

■공연분과 동아리 회원 여러분 공간투쟁 기금 마련 주점을 위해 하나 되어 뛰어들어 고맙습니다. 우리의 단결에 보답이 되어준 학교 당국의 행태에 감사드립니다.

-회폭동 5동3반 반장집 아들 공·연 분과장

■독문과 여러분 일일호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립니다

■서울·속명 동문회 합니다. 23일 목요일 5시 중앙도서관.

■D·U·T·C가 총장배 테니스 시합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D·U·T·C·알동

■미술학교 한국화4학년 17일부터 20일에 야의 스케치 여행 및 M·T 갑니다. 얼마남지 않은 대학 생활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 그리고 멋진 앞날을 위해 한번 동행해보자

-개미

■3000여 동아리 여러분 대동제

동/악/광/장

다함관 식당

20(월)	동우회(1300)	장지계(1000)
21(화)	목아(900)	정명(1000)
22(수)	목(1500)	반정(1000)
23(목)	오(1000)	사(1000)
24(금)	카(1200)	우

동국관 학생식당

20(월)	김(1000)	계(1000)
21(화)	최(1000)	정(1000)
22(수)	오(900)	정(1000)
23(목)	최(1000)	정(1000)
24(금)	우	우

교직원 식당

20(월)	원(2200)	황(2200)
21(화)	유(2500)	이(2500)
22(수)	노(2500)	한(2700)
23(목)	신(2500)	정(2500)
24(금)	우	우

■우리 일면장!!! '미성년자' 딱지 떼기 축하드려요.

-미성년자

■성년식 맞는 불휘선배님들, 어른된거 축하드려요.

-교배이

■KKO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한 너이기를...

-B.H

■유은아, 생일 정말 축하한다. 직접 생일 못해줘서 미안.

-친구

■에오라지 제12회 Work-shop 공연을 축하합니다.

-계석

■수고하셨습니다

■13대 총학생회 집행부여러분! '96일석대동제' 준비에 수고 많이요.

-함께하는 학우

■대동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학생회 간부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이

온방골

축하합니다

■5월16일은 박아라 생일이었대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야미, 동배, 라미 및 불대집부

■5월21일이 무슨날이게요? 바로 광복이 태어난 날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S

■대동제기간동안 야간작업하시는 연합회원님들, 수고하십니다.

-U2

■불고아동학과 김부님들, 대동제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96

■공연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불휘들 사랑합니다.

-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생활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어느덧 한학기가 저물어 갑니다.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합시다.

-우동생

■우리가 힘들게 만난 것만큼 우리의 모임들이 결코 가깝지 않음을, 우리 열심히 하자.

-큐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자.

-부지런한 이

■알립니다

■한국 문인협회 경주지부에서 주최하는 '목월백일장'이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황성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초·중·고·대학·일반으로 나누어 치뤄지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봉축연회식 5월24일 오전9시 정각원에서 합니다.

■덕·회·화 FESTIVAL. 5월22일 수요일 도서관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공연리 체육대회 합니다. 많이 오셔서 젊음을 누리세요. 대운동장. 19일 10시

■시립교직원직위위원회 제17기 수습위원을 모집합니다. 5월28일 늦은 6시, 학생회관 2층

■후회의 방들이날 일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일주일 뒤에 주회방에서 만나요.

-대변인

■가고파 먼거리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매일 매일 즐겨요.

-동국인

■우리의 80여시간의 만남이 영원~하길...

-AL& 달

■관경학부 친구들아, 너희들과 더 친해지고 싶구나

-L

군사반란자들 '정의수호' 차원으로 단죄



한상범
법과대 법학과 교수

시사논단

5·18 특별법의 한계

가 보이는 듯하다. 사실 1961년 5.16쿠데타의 주역(주범)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나 그럴만한 의문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 헌정과피자들은 돈을 쥐고 있고 지위를 보존한 채 행세하며 쿠데타 사실을 가장 사실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누적인 사회관계를 밀어부쳐서 범죄적 관계에 많은 사람이 발목이 잡혀 있도록 해 오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의 실체는 개혁의 소리를 압도하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들은 전일파가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지키고 애국공로자로 등갑을 했던 그 일부 무리를 법정에 세워 재판하고 있다. 이들이 쿠데타를 해서 권좌에 앉았으나, 언론은 아직도 이른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쳐줘 왔다. 그런데 그들이 수천억원의 돈을 숨겨온 사실이 속속 탄로나자 수구 기독교 세력의 발목이 잡혀 있는 언론도 슬며시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을 어느덧 생략해 버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파연 그들을 법대로 처벌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회의가 일고 있다. 이미 짜여진 각 본을 순서대로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슬며시 또는 공언히 흘려서 이들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1980년 5월 광주의 피바다를 잊어버리거나 옛날 이야기로 하려는 시도

도 뻔뻔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은 정의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정불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단의 예를 들지 않아도 것이다.

프랑스 형법도 민족 반역자나 비인도적 학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구애없이 무한 추급과 재산 몰수를 정하고 있다. 이를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궤변을 감히 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궤변과 역지를 쓰는 개인이나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쿠데타 주역의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이나 또는 재판관이 이른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재판에 따른 면죄부를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나아가서 검찰도 쿠데타의 성공은 적법의 경제구조를 두고서는 국민대중은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군사정권이 독재정권이 국민을 수탈해 온 무법과 불법의 범죄논리가 그대로 통하면 민주주의의 가망은 없다. 민주주의의 가망없이 우리가 인간다운 생존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스스로 명백한 정의가 구현될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내란 수괴의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을 변호하는 기독교 세력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따진다고 트집을 잡아서 결국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것은 헌법이 정한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몰고 늘어간다. 얼핏 들어서 그럴듯 하지만 이들 주장이 영타인것은 헌법을 파기한 주범이 그 헌법을 근거로 면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데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통치자급'이란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언론은 여전히 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돈을 '비자금'이라고 미화시켜 불러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기업주가 그런 막대한 돈을 주었다면 그 기업의 상품이나 용역은 그 부담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했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니 국민의 주머니를 텅 것이 된다. 이러한 도둑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정치경제구조를 두고서는 국민대중은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군사정권이 독재정권이 국민을 수탈해 온 무법과 불법의 범죄논리가 그대로 통하면 민주주의의 가망은 없다. 민주주의의 가망없이 우리가 인간다운 생존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스스로 명백한 정의가 구현될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내란 수괴의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을 변호하는 기독교 세력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따진다고 트집을 잡아서 결국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것은 헌법이 정한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몰고 늘어간다. 얼핏 들어서 그럴듯 하지만 이들 주장이 영타인것은 헌법을 파기한 주범이 그 헌법을 근거로 면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사설

소모전을 끝내자

매년 학기초마다 교정은 등록금 책정문제로 떠들썩하다. 본교는 이 연례행사 이외에 또 하나의 연례행사 아니 연중행사가 있다. 바로 본교의 뜨거운 감자인 '공간문제'다.

현재 경상대와 아간간지는 공간확보를 위해 접거를 시작한지 2개월을 넘어섰다. 경상대는 지난 3월15일 LAB B실, 동국관을 접거한 이후 지난 5월6일 접거를 부분철회했으나 오늘까지 66일간 접거를 계속하고 있다. 아간간지의 경우도 지난 3월12일 동국관(L) 45층 강의실 6동접거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70일동안 접거능성을 하고 있다. 접거 상황은 이 두 단과대만의 얘기는 아니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불교대 이과대 법과대 예술대 등 거의 모든 단과대가 올해 접거능성을 벌인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실행, 실습실 등의 자치공간 확보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학교의 행정을 무시한 물리적인 접거능성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나 학생회를 이끄는 주체들이 접거능성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요구 내용과 형식이 일정한 타협과 양보를 통한 현실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원칙론과 명분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투쟁으로만 치닫고 만다. 특히 경상대와 아간간지의 접거능성이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접거를 위한 접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들 두 단과대가 모두 동국관을 생활터전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들의 접거능성으로 인해 많은 신규교수들이 일정한 연구공간을 갖지 못하고 교정을 배회하고 있다. 또 단과대내에서도 돌아가며 밥을 보내는 등의 많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너무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냐는 우려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된 것에 대해 학교측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접거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다. 또 학생측과 합의된 사항은 서로간의 신뢰가 전제된 것이니만큼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학교측이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의 경직되고 강경한 대응의 악순환을 자초한 바 없지 않다.

언제부터 대학내에 학생들의 일방적인 접거능성과 학교당국의 무관심한 방치 풍토가 조성되었는지 안타깝지만 하다. 한시바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21세기 기획단을 진단한다

연구내용 현실에 적용여부 검증 필요

기획단·행정부서 공조로 학교발전 이룩해야

학교측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 지난해 5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성한 '21세기 기획단'이 발족한지 1년이 지났다. 12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위원은 그간 장단기 발전 계획, 제3캠퍼스 및 불교병원 설립 계획, 대학평제 개편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왔다.

단순한 구호나 당위성에 머무는 대학발전안의 나열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자각 속에서 발족한 21세기 기획단은 올 1월에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책자를 통해 본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현재 연구위원들은 제2차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7월 중으로 2차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단지 정책자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이니만큼 당장 가시적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여러 발전안을 실제적 방안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의 과정이 후속되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각 유관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현실성 여부와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며 금명간에 그 검토결과가 수렴되면 21세기 기획단에 제출하여 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피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이 가속화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안은 당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거나,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쯤 불거리가 잡혀 있어야 할 방송통신 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구편성과 운영방안 설정 등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 부서의 기획단과의 원활한 사업연계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각 행정부서의 발전안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발전계획

에 따라 개선하고 있는 부서는 없다. 행정부서의 사업계획과 21세기 기획단의 사업계획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원적인 행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작년의 연구비 3천2백만원에 비해 올해의 지원비는 1천7백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볼때 21세기 기획단을 구성한 학교측도 발족 당시보다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기획단이 본교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할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연구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부서와 기획단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위원이 보다 현실상황에 적

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위한 자료확보와 현 상황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부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21세기 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기획단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율하는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한편, 경주캠퍼스의 경우 작년 3월에 경주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경주캠퍼스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왔으나 올 1월 21세기 기획단에서 발간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책자에 삽입된 기간 작성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경주캠퍼스 실정에 맞게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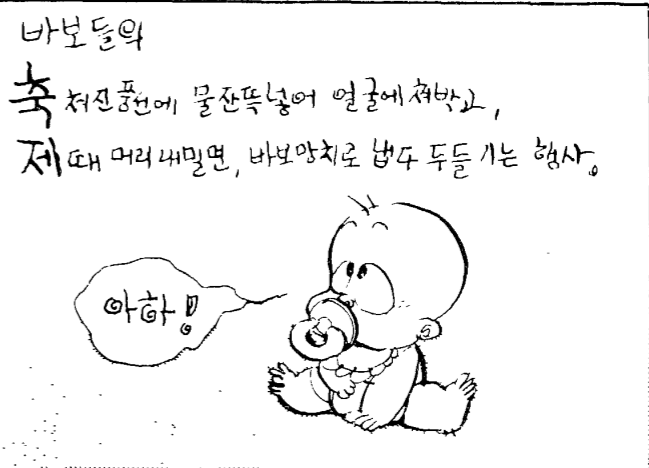
이 책자에 나온 경주캠퍼스 발전 계획안을 살펴보면 학사 및 연구의 학문적 환경조성 교육환경 및 행정 색인 산학협동 및 사회교육 활성화 등의 크게 세부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부에서 우려했듯이 발전계획의 진행상황은 거의 없으며, 가장 기초적인 담당부서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경주발전 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어 현재 경주캠퍼스가 처해 있는 실상을 직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책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본교는 개교 1백주년을 목전에 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준비를 함에 있어 학교측, 행정부서, 기획단의 원활한 관계속에서 서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측이 구성한 기관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왔으나 올 1월 21세기 기획단에서 발간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책자에 삽입된 기간 작성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경주캠퍼스 실정에 맞게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진 셈이다. (사회부)

중국만평

김성수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現代

“세계최고의 기술인재로 키워십시오”



●신동원(메모리 연구소 주임연구원: 256M S-DRAM 연구)

첫번째가 된다는 것, 세계1위에 오른다는 것!
생각만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지. 내가 만든 기술이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였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세계1등 인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미래목표입니다.

現代는 매년 4월 22일을 '現代기술의 날'로 선포하고, '現代기술상'을 제정하였으며, 기술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R&D 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위해-
現代는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동제 개막-통일대행진

어깨동무 하나되어 통일염원 행진

평화협정 체결 및 국보법 철폐 촉구

"이곳 임진각의 느낌을 학교에 돌아가서 동약의 1만 학우들에게 전해주시다 북녘땅을 눈앞에 두고, 자 이제, 96년 목격대동제 개막식을 선포합니다"

황인구 부총학생회장의 개막선언에 환호하는 4백여명의 학생, 통일염원이 가득 담긴 이들의 함성은 가깝고도 먼 저쪽 북녘땅까지도 넘쳐 퍼져나갔다.

지난 14일 '개교 90주년, 목격대동제 개막식 및 통일선언을 위한 민족통일 통일대행진'이 학생 4백여명과 직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학생회 주최로 동양교정에서 임진각까지 진행되었다.

불상 앞에서 사전행사를 가진 뒤 12시쯤 출발한 대행진은 문산까지는 버스로, 문산에서 임진각까지는 걸어가는 형식으로, 1차 집결지인 문산에서 '연방통일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고 적힌 흰 티를 나누어 입고 임진각까지 행진하기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질로 흘러내렸고 중간중간에 달려가기도 해 쉽지 않은 행진이었으나, 학생들은 서로를 챙겨주며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로 가는 길, 민족통일대학교'라고 쓰여진 팻말을 가는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2시간 남짓 걸어 도착한 임진각, 북녘땅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적막감이 도는 듯 했으나 학생들은 금세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단무질로 즐겨져 점심도시락을 나누어먹은 후 학생들은 늦어질 일정 때문에 숙달할 새 없이 다시 문산까지와 조정공원에 함께했다. 가수 유금식씨가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부들때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고 "비라도 내리고 새들도 날다드는 저 곳에 우리는 왜 가지 못하니"라고 말할때 유금식씨는 울먹이기도 했다.

초청공연과 장기자랑의 분위기가 찾아들 무렵 유병문 총학생회장(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시사발언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백만의 힘이 증가되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발언 이후에 이어진 통일선언은 △광주학살 배후조종한 미군은 공개 사과하라 △정전협정 폐지하고 평화협정 체결하

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서로의 사상, 제도 차이 인정하는 연방제로 조국통일 이룩하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내기들이 선언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초청공연, 장기자랑, 시사발언, 통일선언 등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것을 끝으로 통일대행진은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 대해 유병문 총학생회장은 "그 시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놓은 것이며 그 만큼 통일은 앞당겨 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산에서 임진각까지의 행진이나 96대동제 개막식과 통일선언 등의 행

사가 임진각에서 개최된 것은 임진각이 세워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행진하는 내내 경찰의 호위(?)를 받아야 했고 전경차 두대가 계속 따라와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별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어깨동무로 하나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모습, '통일로 가는 길' 표지판을 가는 길에 정성스레 설치하는 모습, 돌아오는 길에 피곤에 지쳐 잠든 새내기들의 모습에서 통일은 그다지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졸린눈을 비비며 버스에서 내려온 한 학생의 말이다. "내년 대동제 개막식은 평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치~" (김기영 기자)

성년의 날을 맞이하며

장미향기보다 삶의 내음 맡길

오월의 세계주 월요일, 바로 오늘 20일은 1973년에 제정된 이래 스물 네번째를 맞는 '성년의 날'이다. 스물 네 해를 거치는 동안 성년의 날은 4월 20일에서 5월 6일 등으로 날짜가 몇번 바뀌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년 오월 세계주 월요일로 지정돼 해마다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 격려하는 기념일로 자리잡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사회적인 권리의무가 있는 성인이 된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통과 의례의 하나로서 가족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격려되어 육체적 시련이 부과되는 이별, 문신, 할례, 신체에 장식하는 등의 형태로 '성년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지는 것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로 정착되었다. 현재 거행되고 있는 '성년의 날'은 이러한 '성년식' 풍습이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성년이란 사람이 권력이나 후견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 신체나 지능이 완전히 발달되어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나이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 성년이 되면 사법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이 되고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을 할 수 있거나 양자를 세울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하여 참정권을 갖게된다. 형사상으로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음주·흡연등의 금지가 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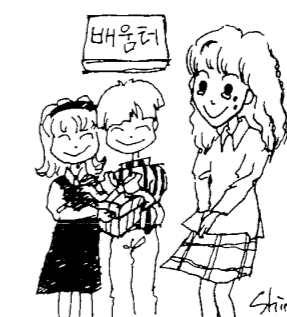
그러나 성년의 날을 맞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오늘을 이러한 의미로 새기기 보다는 그냥 선물을 받는날이나 별 생각없이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76년생으로 이번에 성년의 날을 맞게 되는 한 학생은 "성년의 날에는 장미꽃 스투사송이와 향수받고 친구들이랑 함께 술하면서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지는 것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로 정착되었다. 현재 거행되고 있는 '성년의 날'은 이러한 '성년식' 풍습이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는 학우들에게 축하와 함께 향수 없이도 멋진 어른다운 풍모를 풍길 수 있도록 성인사회에 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장미꽃 스투 송이 민중의 '책임의식'을 고민해 보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지영 기자)

동약로

눈높이 선생님

16일 오후 5시 30분, 학생들의 공연, 술마시기, 물풍선 던지기 등으로 왁자지껄한 교정을 뒤로하고 홍미리(화학·2)양은 바베 절음을 재촉하고 있다.



홍양의 본교 재학생 김재득(법학), 이형준(사학), 김기태(법학), 김근영(법학) 등 4명이 아학생으로 참여하는 배움터에는, 가난하지만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25명의 아이들이 매일 두시간씩 학과와 인생에 대해 공부한다.

매주 한번 '중학생야 학교살'에 2학년 담임선생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지난 2년간 한 번도 거르지않고 참여한 배움터 '노루목 배움터'는 지하철도 노루목 40여분을 소모한 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 그녀를 12명 약동들은 난데없는 환영(?)으로 맞아 주었다. 가정방문이 시작되자 자신을 파하는 '준용'이생각에 잠시 정신이 팔린 그녀를 아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은 것이다.

물풍선과 물가위에 흠뻑젖은 그녀에게 아이들은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라는 말과 함께 밤색 풍인형과 검은색 머리끈을 선물 했다.

"선생님을 다섯시부터 기다렸어요...3시간 동안 기다려서 산인데 마음에 드세요?"라며 티끌없는 눈망울을 빛내기도 한다.

공명님께서 약간나는 5명남짓 지하 1층 교실전장엔 분홍색끈에 매달린 색종이가 유난히 눈에 띈다.

친누나, 친형같은 선생님에게서 '인생극선그리기', '자기 PR시간' 등을 수업 받으며 어쩌면 불공평할지 모르는 세상을 바르게 보려 노력한다.

대부분 월세와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흉악 역시 마음이 이쁜가보다. 아이들의 삶을 그녀는 이렇게 얘기한다.

"모두다 못사는건 아니지만, 포항에서 올라온 장남꾸러기 1학년이하는 두명 남짓한 방에 4명 가족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름은 같이 느끼는 눈높이 선생이고 싶는데...어느날 한 아이는 나를 붙들고 울먹이더군요. 염마가 없다고...1년동안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창밖에 짙게 깔린 어둠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밖에서 '준용'이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누리 기자)

5·18 인문보도 진단

바로 세우려는 5·18... 멀기만한 광주의 봄

당시현장 재구성해도 그대로 방송 못해



과거 군사정부의 시나노릇을 자칭하던 언론이 요즘쯤 정신을 차린것같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던 관제언론의 모습에서 크게 탈피해 5·18정신과 역사바로 세우기에 일조를 하는듯하다.

지난 18일 KBS 제1라디오에서는 특별 기획 '소리극성-80년 5월부터 96년 5월까지'를 어퍼한 설명없이 진압군이 지르는 고향소리, 팔러가는 군중들의 비명, 도청 앞 시민대회의 발원록등을 생생하게 음향으로만 구성해 방송했다. 또 광주문화방송에서는 '시민군 윤상원'을 당시 그가 향정에서 죽기까지의 사건을 추적해 다큐멘터리로 자체 제작해 14-15일 일일간 광주·전남지역에 방송했다. SBS는 '송자나의 취재파일 세상속으로'의 모란꽃으로 불린 여자를 통해 시민을 선동해 남파간첩으로 몰려고문을 받는 전옥주씨의 회고담과 그때의 상황에 대한것을 다루었다. 몇년 전 MBC가 제작했던 '어머니'라는 다큐멘터리가 계엄군의 폭력장면등이 정부의 압력으로 부분삭제되어 방영된것과는 큰 대



각 방송사는 5·18 재조명을 위해 5월 광주의 최후를 담은 기획과 다큐멘터리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공문실에서 잘린 영화 '부활의 노래'의 도청 상황실 장면.

조를 이룬다. 시대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이 언론일진데 언론통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5·18을 공영방송에서조차 다루게 되었다.

과거 80년 5월 당시에는 숨죽여 울어왔고, 왜곡보도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못

해 시민군에 직접 가입 했던 언론인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권력의 독에 막혀 비판능력을 잃고 씩어가던 물이 드디어 조금씩 독을 깨고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독을 깨는것은 우리 국민 모두였을 것이다. 지난해 온국민의 열원이던 5·18정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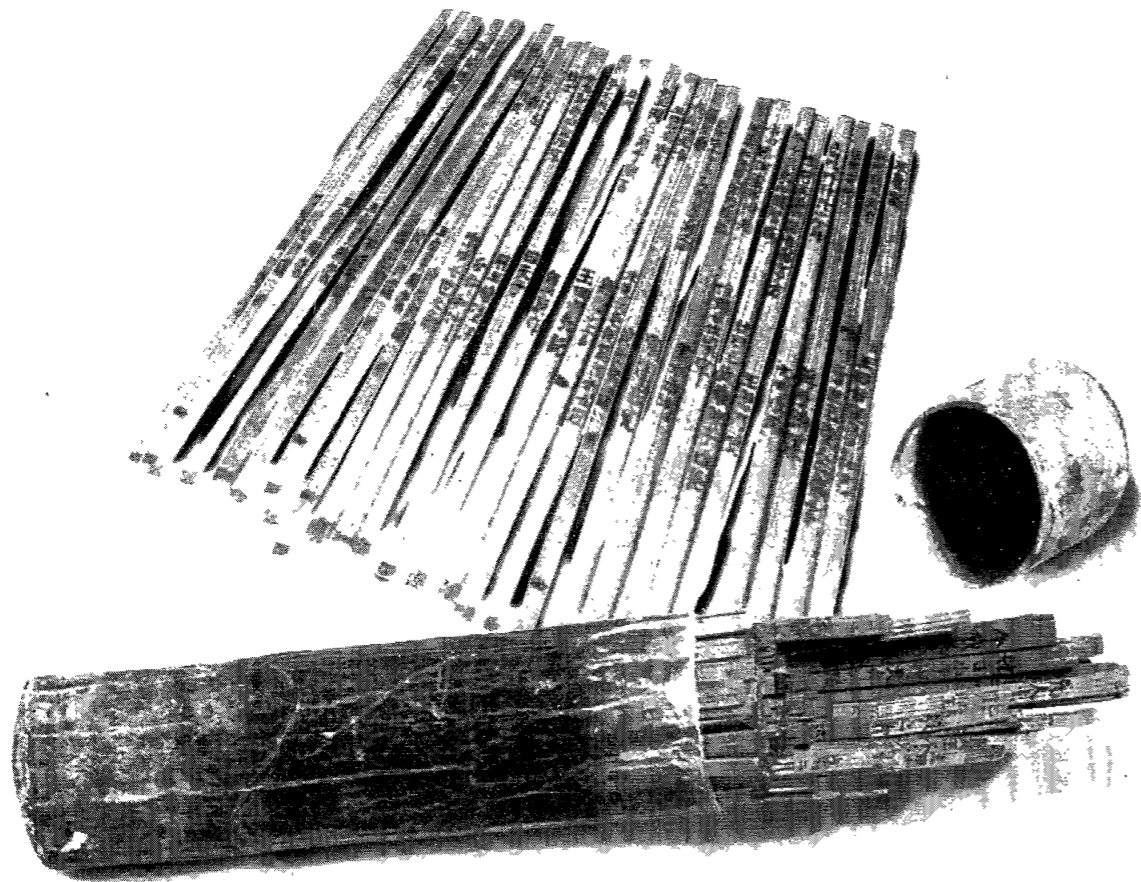
국민적으로 계승하고, 5·18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기념식 생중계와 국가기념일 제정, 특별법의 제도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16주년을 맞아 보도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더이상 5·18은 광주만의 문제는 아닌것같다. 지금까지 앞장섰던 대학생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초등학교학생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하고, 모두 5·18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5·18을 움직임에서 양자로 끌어내는데 공헌한 것은 언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광주는 망령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노력으로 민주화의 발목을 잡는 수구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놓았다. 이제 광주문제는 '꼭 해결해야만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것인가를 논의 해야할 때이다. (최승일 기자)

POSCO 메시지면학편



‘韋編三絶’

위편삼절

옛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죽간(竹簡)이란 것에 문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책(冊)이란 한자도 바로 이 죽간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는 형상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韋編三絶(위편삼절)'은 이렇게 가죽으로 엮은 끈이 세번 끊어진다는 뜻으로, 학문에 성실했던 옛 성인들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겸손한 탐구자만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 앞에 늘 성실한 '위편삼절'의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 포항제철

*죽간: 땀자리에 글귀를 적어 가죽끈으로 꿰어 쓰기도 하고 뿔에 넣었다가 빼보기도 함. 우리나라의 옛책은 대부분 다섯바늘을 꿰매는 것이 특징이다.

①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와 전망

문화혼란기에 대한적 의사소통 체계 필요

지난 몇십년 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최근 문화 및 레저 산업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프로 그램이 없어서 놀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엄청나게 많은 문화적인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온갖 재미가 넘쳐나는 구경거리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현란하게 번모해 가는 환경이 우리 생활의 문화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대체로 문화 상품 만큼, 우리 개개인의 일상엔 윤락해지고 다양한 개성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자국은 충만해져 우리 마음은 늘 권태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자극을 찾아나선다. 사실 우리는 예전 같으면 놀라고 감동할 일, 또는 슬퍼하고 분노할 일 대 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웬만한 충격에도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이른바 충격 체감의 법칙이라는 악순환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의 문화적인 감각은 날로 세련되어

대중문화 읽기
 요즘 대학생들의 여가 생활은 영화 관람이 대부분이다. 또 하루라도 TV를 보지 않으면 못살겠다는 사람도 상당수 된다. 이처럼 영상물이 대중 문화를 주도해가는 현실에서 본지는 '대중문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기획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다각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 ①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와 전망 — 김찬호(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 ② 영상과 문학, 새로운 전개 — 장영일(영화감독)
- ③ 대중문화 시대의 TV읽기 — 손병우(순천향대 신학과 교수)

가지만, 얼얼히 말해 그것은 소비의 차원이 아닌 생산의 차원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범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기호와 이미지들에 노출된 우리의 감수성은 최선의 첨단 문화들의 맛을 익혀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생산적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량적인 확대만을 쫓아온 나머지 온전한 삶의 기쁨을 상실했다. GNP의 신화에 매몰되어 그것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 양식을 재편시켰다. 그 결과는 도시화와 핵가족이다. 우리는 불건의 생산을 위해 이

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여가도 대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나마 가족 안에서조차 일체감과 유대를 기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단절을 일으킬 때가 많다. 이렇듯 세계는 점점 다원화되어 그 안에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점점 더 단절되고 폐쇄적인 계층으로 분열되는 듯하다. 그리고 그 빈틈바구니들에는 첨단 문화 상품들이 서식하고 있다.

산업 문명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상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문명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본다. 하늘과 땅과 물을 뒤덮는 죽음의 그림자, 점점 벌어지는 남북 격차와 빈국의 인구 폭발, 거세게 발흥하는 호전적 종족주의와 그 폭력에 쫓겨 방랑하는 난민들... 다른 한편으로 전개되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비약적 성장의 결과 그 안에서 격렬하게 증폭되는 가상 현실이다. 기묘의 무한한 증식과 사이버스페이스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듯 그 어느 때 보다도 개개인의 삶이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매우 긴밀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지금, 우리는 의사소통을 수반하지 않는 정보의 범람을 무기력하게 압도당하고 있다. 그 절박함과 관련한 사이의 대비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미래 사회의 행복은 이러한 생태학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적인 의사 소통 체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질적인 세계관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사이에 조정과 협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바탕을 사

회 내부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 자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이다.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 허겁지겁 쫓기며 허황된 욕심만 부풀리는 사람들을 공공의 공간으로 불러내는 일이다. 가상 공간에서 난삽하게 번식하는 기호의 숲에 틈을 내어 성장의 의미 공간을 열어가는 일이다. 사적인 불만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공공인 쟁점으로 제기하고 그 해결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의 내용은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흔히 이야기되듯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가 상품으로 중요성을 획득하고 그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며, 따라서 그 영역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전달 및 처리 능력을 성숙시켜 과학 기술의 진화로 인해 거대하게 얽히고 설키는 삶을 통째로 이 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권력과 자본의 구심력에 흡수되어버린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일상의 차원에서 복원하는 것은 21세기 문화 기획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 능력을 체득하는 민중만 고도의 복합 문명의 인류의 행복한 진화를 보장한다. 그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설픈 걸도양세만 내내내다가는 결국 현대 세계의 급지산자로 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김찬호
 (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달 하나 천장에

크레타 섬과 작가 카잔차키스



섬이란 육지와 떨어져 있어 세상 돌아가는 일상과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개성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명하거나 아니면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섬이거니를 가리키고 찾아다니다.

몇년전 겨울 신들을 걸러낸 그리스 신화의 보금자리이며 예게 해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를 찾았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섬의 미노스왕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만들도록 해 우두인신(牛頭人)인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두었다. 테세우스가 미노스왕의 딸인 아리아드네의 실을 가지고 이 괴물을 죽인 후 탈출한 미궁은 유명한 장인 다이달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화의 세계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섬은 영국의 고고학자 에반스에 의해 발굴되었다. 약 3천7백년전 방 수가 무려 1천5백으로 추측되는 진짜 미궁과 같은 크노소스 궁전의 일부와 성벽도 없이 폐허를 만류 개방적이고 신선한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던 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아테네의 피레우스에서 배를 타고 10여시간 에게 해의 밤 바다를 여행하여 크레타섬의 이라크리온에 도착하면, 음식점, 바, 가게 등에서 '조르바'라는 간판을 보게 된다. 이것들은 그리스의 위대한 작가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이름인 것이다. 엑소니 퀸의 열연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던 동명의 영화이기도 하다. 실제 인물인 주인공 조르바는 흠뻑 만드는 데 매해가 된다고 세계가 사랑을 도기로 잘라버리고,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내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농담하게 고집하는 소박하며 호탕한 사나이이다.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로부터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삶을 배웠다고 한다.

노벨상 후보에 2차례나 지명되기도 했던 카잔차키스는 1883년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그리스인이다. 그런데도 그는 정열적이며 욕심없고 소박하며 거침이로 소문난 크레타인으로 자칭하기를 좋아했다. 평생 세계를 떠돌며 생명을 넘치는 인간과 현실의 고비를 파헤쳤던 그는 동양과 불교에 심취했던, 용기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용기의 위대함과 영혼의 자유를 일깨워 준 고독한 거인이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삶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카잔차키스를 찾아 들꽃 한 묶음을 들고 그의 묘를 찾았다. 아름다운 에게 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언덕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문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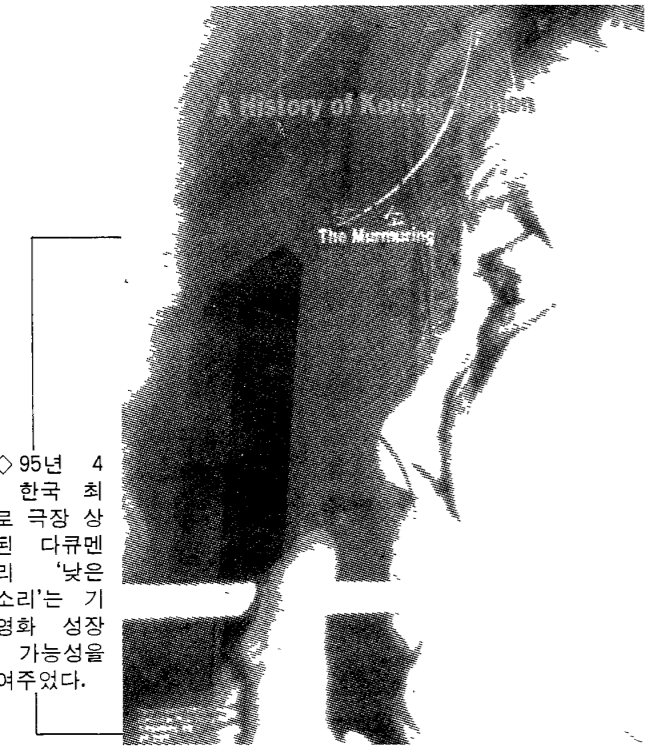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

시작도 끝도 없는 에게 해의 바다에 다시 어둠이 내리면 내 기억의 창고에는 또 하나의 보석이 길을 밝힌다. 나에게 여행은 삶의 탐구이며 반성이다.

전봉진 인문과학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제작중인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을 찾아

'낮은 목소리'에 이은 영화 '내가 다시...'제작중 식민지 시대 종군위안부 할머니 비극적 삶 다뤄



◇ 95년 4월, 한국 최초로 극장 상영된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는 기록영화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관객 1만 2천명. 변영주 감독의 두 번째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의 흥행실적이다. 그러나 상영영화인 '연행나무'가 64만명, '꽃잎'이 28만명의 흥행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1만2천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즉, 우리네 기록영화의 현실이다.

기억할지조차 모르겠다. 변영주 감독의 93년 국제매춘 문제를 다룬 비디오 기록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16mm필름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가 이 작품들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단 하나의 공익기초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영화산업구조속에서 기록영화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낮은 목소리'는 제4회 마가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오가와 신스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1993년부터 7월, 나는 멋대로 이 영화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조금

은 성가시고 많이 상처받은 모습으로 할머니들은 훨씬 뒤에서야 함께 시작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도중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울리면 눈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면 기대와 절망, 매일매일 저를 미치게 한 것은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드는 것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고, 우리들은 오기가 솟았습니다. 모두가 함들 것이라고 했던 이 영화를 끝내고야 말겠다고. 할머니들의 '낮은 목소리'를 알고야 말 거라고...

'낮은 목소리'는 변영주 감독이 대표로 있는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에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다. 변영주 감독이 항상 생각해 오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담은 '낮은 목소리'는 일제에게 강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현재의 삶을 다룬 93분짜리 기록영화로 제작비 1억7천만원의 거의 빛을 지사피해서 만들었다. 나이가 어려서 성기가 작다고, 그래서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 성기를 칼로 찢겼다는 상상까지조차 힘든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하루종일 혼자서 담배피면서 소일이나 하는 할

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뼈와 말라버린 가족만이 남아있는 생기가 없는 가슴을 지닌 위안부 할머니의 현실, 이것은 극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소름이 끼친다.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5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할머니들의 현재를 보았었다. 매우 수모 일하면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는 할머니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는 할머니의 곁에서, 긴 침묵과 무관심의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제작진도, 관객들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내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에서 다시 '낮은 목소리'에 이어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3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를 촬영중에 있다. '낮은 목소리'가 안에 깊이 감추어 둔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것이라면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깊숙히

파고들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보려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2억4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영화의 수입만으로는 영화를 제작하기 힘들어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보임'에서는 약 2백 30초 가량의 영화를 담을 수 있는 1백피트의 필름을 팔아 '보임'의 영화에 협력제작자로 참여시키고 여러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로 모르는 사이, 자신들의 진실을 간직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아 오신 많은 할머니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들도 우리 곁을 떠

날 준비를 하신다. 그녀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상처자국을 내보이면서 '너희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는 할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그 많은 불온과 예기치 못함이 나만을 비껴나가는 것을 다행스러이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변영주 감독의 이 기록 영화들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녀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김삼남 기자)

입만 즐거운 감자칩-포테토 Dieteen

다이어틴 행동지침
 오른손이 먹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입이 먹는 것을 허리가 모르게 하라!

먹을때 즐기는데 먹고나면 후회되세요?
 Dieteen으로 골라주세요!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 감자칩
 Binggrae Dieteen -
 기름기, 칼로리는 쏙 빼 -
 새롭고 저지방이 입안에서 특특!
 Binggrae Dieteen
 우리, 감쪽같이 먹자구요!

기름을 쫓는

포테토칩 다이어틴

예산분배 중앙위 상정 임박

석달째 지연...예산 소위, 최종안 제시

96년도 1학기 중앙기구 예산분배가 비율문제를 두고 사무장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중앙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상황에 처했다.

8천만원의 학생회비중 중앙기구로 배정된 37%의 분배를 두고 △총학생회=23% △동아리연합회=8% △총여학생회=6.5% △총대의원회=5%를 요구해 5.5%의 초과분을 절충하지 못한 것이다.

예년에 비해 한달여간 늦어진 예산분배작업은 등록금문제, 노수석군 사망, 개교90주년행사 등 학내외의 굵직한 사건속에 진행이 수월치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회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소모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빠듯한 일정속에 각 기구간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작 회의석상에서는 매년 같은 주장만 반복돼 회의 당사자들의 입에서조차 "시간낭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예산분배 소위원회 최이선(통계4·총대 부의장)위원장은 "자신의 경우 처음부터 총대 정·부의장과 단과대 대의원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져 각 기구간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전기구의 합의를 원칙으로 지난 2월부터 작년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토한다. 일정이 너무 팽팽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각 중앙기구의 사정은 서로가 마찬가지다. 각자의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받겠다고 해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까지 운영비로 털어내는 현실에서 각 기구의 주장은 당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작년 2학기 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학생회비의 인상이 상정된바 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화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최위원장은 "편입생의 증가로 작년에 비해 집행액이 늘어나 요구액을 채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담초 비율만을 고집한다"며 서로의 양보가 가능한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최종 절충안으로 △총학생회=20% △동연=7.5% △총여=5.5% △총대=4%를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위원회의 일방통고제 의해 양금만을 남기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실을 남기느냐 하는 일이다.

(취재부)

목역대동제 지난 17일 폐막

한데 어울어지는 미흡

개교90주년 맞이 목역대동제가 지난 17일 북두사거리에서 치러진 폐막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동제는 지난 14일 통일대행진을 시작으로 한의대생들이 준비한 무료검진, 문부식씨가 초청된 열린강좌, 대동한마당, 각 단과대행사 등 동아리 행사가 동양 곳곳에서 펼쳐졌다.

총학생회 조해주(산림자원4) 기획부장은 이번 대동제에 대해 "구체적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난해 큰 호응을 받은 통일방안 대토론회에 이어 실현

적 의미를 부여한 통일대행진과 민중연대를 통해 주제의 차원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동제는 한데 어울어지는 장이라는 본연의 의미와는 '조금 벗어났다'는 여론이다. 만해광장에서만 열거로 한 일적조차 무시, 허가되지 않은 주점이 열리는가 하면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등은 총학생회와의 연계없이 대동제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분교4)는 이번주중 대동제에 대한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스승의날을 맞아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황인규 부총학생회장이 함께 축하케익을 자르는 모습. (김희동 기자)

동악 성문화제 오늘부터

성도덕 문제제기...재인식 계기 마련

'제1회 동악 성문화제'가 제11대 총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 주최로 오늘(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열린다.

왜곡되어 있는 성의대물론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적이고 은밀한 성의 영역을 정중·사회적인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 올린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 대해 총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문화제가 동악의 학우들이 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날인 20일에는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인형극을 담은 인형극 '복사 씨가 웃는다'가 학림관 소극장에서 1시와 3시, 5시에 공연된다. 미술학과 학우들이 함께 주최하는 이 인형극은 성도덕에 대한 문제를 과격적인 형식으로 제기한다.

또 특별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영화를 다양하게 선보인 'Feminism Film Festival'과 'Gay Film Festival'은 21일과 22일 학생회관 5층 소극

장에서 각각 열린다. 21일 1시에는 '스위트' 3시에는 '파니넬' 5시에는 '월드 메이즈 데일', 22일 1시에는 '황홀' 3시에는 '내일로 흐르'는 강' 5시에는 '파리는 불타고 있다'가 상영된다.

마지막날인 23일에는 그동안 공

모해왔던 '동악 성문화제'에 대한 사상식과 성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초청강사의 강연회를 중앙당에서 4시부터 시작한다.

한편 문화제 기간동안 팔정도 주변에 성문화화 출품작들이 전시할 예정이다.

학내 시설공사 마무리 단계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학내 공간재배치 시설공사와 5월1일 시작된 원형복원 공사 및 식당이전 공사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총공사비 2억7천2백10만원으로 인포건설(주)이 시공하는 이번 공사는 △분관 사무실이전, 회의실과 1층 강의실 5개 기계실 3개 설치 △동국관, 교수회관 2층, 원형복원 2·3층 연구실 설치 등이다. 그밖에는 도서관 3층 확장공사, 합동관

독서실과 식당의 이전공사 등이 진행,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관, 화학관 외부장문 교체 △동국관, 체육관, 다학관 방수 공사 △분관 중앙당 내부수리공사 등이 함께 방학동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과 공직설명회

취업과(과장=김철석)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동국관(L101)에서 96학년도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직취업안내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집의, 담변도 동시에 진행되며 강사에는 총무처 김중양 인사국장과 동문광무원인 문화체육부 장소년수련과장 이상일씨,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 이계문씨, 외무부 동북아2과장 정재남씨가 초빙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김철석 과장은 "공직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판기문제 해결 전망

지난 1월에 논의되기 시작했던 '생리대 자판기 설치'문제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11대 총여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는 그동안 생활협동조합합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에 공문을 올리는 등 계속 자판기 설치·운영을 요청해왔으나 생협측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지 자판기의 반환 문제와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총회에서 자판기 회사와 연락을 취해 결정을 볼 것"이라고 대답해 이 문제는 이번주 안으로 해결 될 전망이다.

공대 공청회

공과대 학생회(회장=구중서.전지)는 21일 오후 5시에 본관 중앙당에서 학교측과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제3캠퍼스 이전에 대한 학교측과 공과대 학생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측과 공과대 학생회장의 제3캠퍼스에 대한 기초발제 후 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대 대의원대회

불교대학생회(회장=방준배·선4)는 불교대 대의원대회를 오는 21일 불교대 학생회실에서 가진다.

상반기 동안의 평가를 겸한 이 자리는 △불교대 주간의 평가 및 참일꾼 선정 △대의원 총회에 대한 준비 △전반적인 불교대 감사 등과 대동제 이후의 계획이 논의된다.

학과소식

연극영양학부 동문체육대회가 오는 25일 민해광장에서 개최된다. 경영학과 모의토의를 오는 22일에 3, 4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전·무·대

깨어나라

○...여름이 다가오자 밤마다 농악의 잔디밭 곳곳에서 술자리가 벌어진다.

돈 없는 우리의 학우들이 마음껏 술 마실 수 있고 또 몇 장의 신문지에 나눠 앉아 돈독한 학우의 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학우들이 마구 버린 술과 인주에 잔디밭은 악취로 가득하고 만취한 상태로 도서관에 침입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도서관을 나신 한 학우 외치기를 "깨어나라 동학지성!"

페어플레이

○...사슴의 발로 보혈 효과에 좋은 약은? ①인삼 ②녹용 ③대추 ④감초- 이것이 한약 조제약사시험에서 약대 교수가 낸 문제라는데.

국민학생도 맞출 만한 이런 문제를 출제한 약대 교수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불합격자를 위한 재시험까지 요구한다.

자고로 남의 발그레한 배짱이 아니다. 아마 약사회는 늘부의 자살인 모양.

이에 한 시민이 말하길 "이왕 싸우는 거 페어플레이 합시다."

세종 물다

○...4천 5백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중학생이 일상실용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

대부분의 초·중 학교는 어린 아이들이 글을 어느 정도 배운후 입학한다는 전제하에 지도하기 때문.

출발서에서부터 해매기 시작하는 아이는 진도 따라가기 어렵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울 "백성이 니르코자 흠배 이서도 모 중내 재물을 시러 퍼지 못할 놈이 하나라....."

이래도 되나

○...뉴욕 뒷골목, 파리 피갈, 프랑크푸르트 역전, 동경 신주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섹스 쇼이 서울의 신촌에 상륙했다.

성인 섹스 쇼는 성(性)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간.

그런데 이 상징의 위치가 5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이 상징 바로 위층에 5~7세 어린이를 위한 음악학원이 있어 문제라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국이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에 본 회전문대자 '어안이 병'

법과대 점농 철회

학교 현실감안·소모임 부진 이유

법과대학생회(회장=김종길·법3)는 지난 4월 3일부터 40여일간 이어온 점농철회를 이번주 내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종길 학생회장은 철회 방침에 대해 "학교 현실을 감안하고, 농성으로 인해 학회, 소모임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대는 점농농성 기간동안 학교측과의 대화를 통해 △자차공간 보장과 분산배치를 통한 공용강의실 확보 △동국관(L동) 1층에 자로실 확보 △관례를 찾아볼 수 있는 모범이 포함된 컴퓨터 설치를 약속 받았다.

재학생 모교 방문 행사

스승의 날 맞아 22일까지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재학생 모교 방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학생과(과장=김병주)에서 고교 동문회 또는 개인별 희망자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이 행사는 재학생들이 출신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께 감사인사와 함께 교무처가 제공하는 본교 합격자 명단과 입시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실시된다.

교무처 측에서는 "학생들의 모교 방문에 사은품과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어 보다 많은 재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30여명 이상이 더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은품은 자년의 수건과 달리 메모지 꽃이가 준비됐다.

총동 야구우승 격려

총동총회(회장=황명수)는 지난 16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춘계리그 야구대회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격려의밤 행사를 가졌다.

오후 6시 2층 연회실에서 열린 이번 격려의 밤에는 총 동창회장, 승석구 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이번 격려의 밤에는 총동창회장, 승석구 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학술심포지움)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전망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진단한다

제1주제: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 대학의 진정한 의미

발 제: 이영수 교수(경기대, 교육학)

토 론: 박기용 교수(상명대, 교육학)

제2주제: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발 제: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

토 론: 박부근 교수(동국대, 교육학)

종합토론

전체사회: 김일중 교수(동국대, 무역학)

일 시: 1996년 5월 22일(수) 오후 3시-6시

장 소: 학술문화관 1층 제2세미나실

주 최: 대학원 총학생회

시대도전 젊은 실천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해외 자매대학 연수생 선발

본교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다 음
1. 국 가 명: 미국
 2. 대 학 명: 미시간주립대(MSU)
 3. 선발인원: 10명(선착순)
 4. 지원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5. 특 정: 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3학점) (단,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6. 연수내용: 세계화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통일한내용, 기간, 혜택- 학점인정)
 7. 연수기간: '96. 6. 30~7. 13(2주간)- 예정
 8. 연수경비: 약 \$2,500(수업료,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재비, 주말여행, 나아가라폭포 관광 등 포함)- 비자수수비는 제외
 9. 신청기간: '96. 5. 23(목) 한.
 10. 신청장소: 학술교류부
 11. 신청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3024-5)로 문의하기 바람.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생 추가 선발

본교 해외 자매대학 자비 어학연수 참가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다 음
1. 국 가 명: 미국
 2. 대 학 명: 메인주립대, 하와이 주립대, 미시간주립대(MSU)
 3. 선발인원: 미시간주립대-1명, 메인주립대-9명, 하와이 주립대-8명(선착순)
 4. 지원자격: 본교 학부(대학원)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5. 특 정: 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3학점) (단, 휴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6. 연수내용: 가. 메인주립대 1)기간: '96.7.15-8.23(6주간) 2)경비: 약 \$3,800(수업료,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재비 등) 나. 하와이주립대 1)기간: '96. 7. 9-8. 23(7주간) 2)경비: 약 \$3,600(수업료,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재비 등) 다. 미시간주립대(MSU) 1)기간: '97. 1-8.17(7주간) 2)경비: '97주: \$4,600(수업료, 숙박비, 왕복항공료, 교재비) '98주: \$3,200() - 기타 비자수수료 등 재발견비 제외
 7. 신청기간: '96. 5. 23(목) 한.
 8. 신청장소: 학술교류부
 9. 신청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3024-5)로 문의하기 바람.

1996. 5. 15.

연구교류처장

예비군훈련 안내문

예비군 대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금번 예비군훈련의 특별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훈련 일정 준수

520(월)	521(화)	522(수)	523(목)
공과대	불교대, 예술대	이과대	문과대
교직원	경상대, 사법대	이부대	사과대
	법과대	생명자원과학대	대학원

-단과대별로 계획된 일정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본인이 해당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참석가능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다른 단과대 일정에 참석하면 불참 처리됩니다.

-구파발 전철역에서 승차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대기(06:20-07:00 운행) 시내버스는 북한산성 경우 승차행 156번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복장 규정 준수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군용벨트), 고무링을 착용해야 하며 -일복무는 전투복과 일복무모자, 국방색 훈련복과 국방색 훈련모로 상하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훈련복 착용자(모자포함)와 검정색이나 일복무는 통일화/목없는 전투화 착용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3. 신분증 휴대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면허증, 국가 기술자격증, 여권, 기타 국가 공인된 사진부착 증명서 중 1가지 신분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예비군권성 카드 복사본을 발급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1996. 5.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